01.30.목요일

* 디렉토리 자동생성  
  - 체계적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싶음! 방법이 어려워ㅠㅠ 회사에서도 기본적인 디렉토리 매뉴얼이 있을텐데 상황에 따라 비효율적일 수도… 자동으로 파일을 분류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!  
  - 원하는 파일을 더 찾기 쉽게!
* Azure는 이미지 처리에 유용한 도구
* 구글에 검색했을 때, 광고성 게시물을 걸러주는 서비스  
  - 질병 검색했을 때, 광고 게시물이 많아서 진짜 사람들의 후기를 알기 어려움.
* 한 스타트업은 진짜와 가짜 인플루언서 구별  
  - fake 좋아요를 걸러서 진짜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스 가려냄
* 오디오클립 대사를 기반으로 “사람이 오늘 죽었대.” 라는 오디오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
* 학습된 모델들로 통해서 얻은 가치들 정리하자
* 승윤님 보유 기술
  + 물체에서 사각형 치는 것. 오브젝트 디텍션
  + 이미지 분류 가능
  + 스켈레톤 입히기
  + 생성 모델로 저해상도로 고해상도로 바꾸기
  + 스타일 트랜스퍼  
    - 색깔 바꾸기 (필터)
* 모델을 학습시켜 정확도가 높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하자!
* 현재 우리는 웹으로 구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!
* 동영상이 유해 차단이 안 돼. (아이들의 동영상 시청)  
  - 자막 자동 생성을 통해 필터링 하든가 아니면 아이가 유해 동영상을 볼 때 부모님께 알람 보낸다.  
  - 영상의 긍부정 판단 (자막의 텍스트 추출 통해)
* 인스타그램으로 자동으로 맛집 명소 추천  
  - 저작권은 DM으로 허락 받기  
  - 인스타그램 API 활용  
  - 자동으로 게시물 올리는!  
  - 광고문의는 챗봇을 통해 받음
* 인스타 맛집 사진들을 긁어 모아 모델에 넣으면 모델이 맛집이다 아니다 판단! (사진과 텍스트 통해)
* 인스타 계정 프로필을 사이트에 의뢰해서 맡기면 어떤 사람인 지 분석해 줌  
  - 태그는 몇 개 사용하는지, 사진은 셀카인 지 제 3자가 찍어주는 지 등으로
* 영화 산업  
  - 영상을 모델에게 전송. 모델이 그 사람의 특징을 캐치하여 배우에게 캐치해 줌
* 개인의 생활 패턴 파악해   
  - 뱅크 샐러드, 주기적으로 사용 패턴 알려줌  
  - 사람들이 휴대폰 사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에 맞춘 서비스 제공!  
  - 예. 만약 알람을 자주 잘 끈다면, 이를 파악해 휴대폰이 알아서 알람을 잘 끄지 못하게 설정.

**01.28.화요일 정리  
개인화!**

**소장보단 소비!**

**정보의 접근성 낮추기!**

**산업군 정해보자**

* 자소서 분석  
  - AI 코멘토  
  - API 중 형태소 분석 있음. 이를 통해 우리 자소서 바탕으로 이 사람이 어떤과에 적합힌 지 파악해줌. 다른 사람의 자소서도 참고하여 그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도 추천해주게!  
  - 하나는 웹, 하나는 엔진으로 만들기!
* 생기부에서 자소서로 넘어가는 단계 도와주면 좋을 듯  
  - 예전에 시도해봤는데, 생기부는 데이터로 만들기 어려움
* 말라리아에 걸린 세포인 지 아닌 지 판단 (세포 이미지 분석)
* 인스타 기반 여행지 추천이나 데이트 코스 추천  
  - 푸딘코 활용도 좋아
*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, 사람들의 동선 파악  
  - 트위터(더 익명)를 통해도 가능
* SOMETREND - SNS 트렌드 분석 사이트  
  - 트렌드 분석 통해 긍부정 분석  
  - SNS: 트위터, 블로그, 인스타그램, 뉴스
* 모두가 공통으로 알고 있진 않은 정보 (공유되어야 하는 정보)  
  - 자동으로 공유되게 하는 것도 좋을 듯  
  -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했었는데, 관심있는 사람들만 알지 나머지는 몰랐으니까
* 기업 내 분쇄하는 자료 (기밀 자료)  
  - 이게 진짜 분쇄해야하는 지 안 해야 하는 지
* 사람의 기분을 좋게하는 방법 추천  
  - 평소의 행동 분석 통해  
  - ~하면 떡볶이를 먹어라, ~에게 전화를 걸어라 등
* 챗봇  
  - 자산관리  
  - 30살에 요트를 사겠어 -> 편의점 알바 몇만 시간 해야합니다 – 현실 자각  
  - 목표에 따라 현재 해야 할 상황 알려주기
* 일상생활에서 아까운 시간들  
  - 감정 소모하는 시간  
  - 이동 시간  
  - 노력에 반비례 했을 때의 결과
* 노력만 하면 이뤄지는 행동…
* 인스타 친구들이 자주 가는 장소 스크랩… 장소 추천
* 수요 예측  
  - 재고량 볼 때, 다음에 몇 개 주문하면 좋겠다
* 소방설비 – 중요한 물품을 사용해야하는 곳에 수리가 잘 안되어 있는데, 이를 판단해주면 좋겠다  
  - 며칠 마다 관리하세요! 하는 지표 제공하면 좋겠다
* 연예인 입고 남은 옷들 – 중고 상태  
  - 중고 가격으로 고객과 매칭  
  - 매니아층 공략
* 에어 프라이어 같은
* 발 사진 찍어서 회사별로 발 사이즈 추천  
  - VR로 입히는 것 가능
* 최대한 밀착하는 옷 입고 빙글 돌아 몸매 인식 – 가상으로 옷 입어보기
* 수질 측정하는 하드웨어 있었으면!
* 카톡 자동 답장기  
  - 마치 분신
* 보건소에 장티푸스가 없었음…  
  - 공유되지 않는 정보
* 스포츠, 경기 영상 분석해서 언제 프리킥 찼는 지, 트래킹해서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각 선수가 어떤 실책하는 지 파악 가능
* PT 검사… 내 몸의 체형 분석  
  - 셀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
* 춤 배울 때, 아이돌 춤 추는 거 보기
* Pose estimation  
  - 춤 배우기  
  - 졸음운전  
  - 엉덩이 어디곳에 많이 압력이 가는 지 알아내서 자세교정 가능함
* 기존의 헬스장의 폐업률이 높다.(문제)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자!  
  - 그 사람이 운동하는 정보를 헬스 트레이너에게 제공해주는 게 낫다  
  - 일반 피티사람은 디테일하게 적용해야하는 부분도 일반화 시키려 함  
  - 그룹 레슨이라 개개인을 잘 봐주지 못해  
  - 관절의 움직임을 파악   
  - 헬스 카운팅, 개인 별로 행동 조언  
  - 몇 세트를 몇 번 해야하는 지 (자세 교정)  
  - 밀고 당길 때 몇 초가 되어야하는 지  
  - 이런 것들만 잘 알려줘도 운동효과가 되지 않을까  
  - B2B로 제공한다면, 모든 헬스장마다 다른 솔루션을 적용해야할 수도  
  - 특정 위치에 특정 디바이스를 놓으면,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듯  
  - 트레이너가 바뀌면, 이전 운동하던 개인의 상태를 잘 모름.  
  -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운동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 
  -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푸드테크에도 접목가능! 개인의 신체정보, 운동량을 알면 정확하게 추천가능해!
*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포즈 디텍션!  
  - 자동차의 위치  
  - 있어야할 곳에 없어야 할 것이 있는
* Azure로 자동화한 사용사례 조사하면 좋을 듯!  
  - 커피 내리는 기계에 IoT 연결하여 언제 기계가 고장날 지 예측  
  - 생산성 클라우드  
  - 송수신선을 드론으로 하는데, 드론의 센서나 이미지를 Azure 클라우드로 보내 처리한다.
* **팀원들이 툴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 지도 평가요소 (깃, 트렐로)**
* **중요 맥락을 캐치**
* 인스타그램 가계정 판단  
  - 가계정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기에 이를 AI로 막아보자  
  - 시간 절약은 글쎄…
* 물고기 신체 검사  
  - 연어
* 신한 금융 해커톤 경험  
  - 은행 대기번호 안뽑을 수 있는
* 하수도 사진 (파이프)  
  - 집 싱크 하수도 보다 생각함  
  - 노후된 시설 detect
* 변기 막힐 것 같은 지 예측하면 좋겠다  
  - 술집 이런데에 좋을 듯
* **실리콘밸리 해커톤 참조**